

2016.06.18~24

# 주간

## 주요 베트남비즈니스 정보

### Contents

####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베트남기업 동향

####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베트남사무소



##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개성공단 입주기업, 베트남에 대체공장 첫 가동
- ▶ 현대해상,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설립
- ▶ 대우건설,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 신도시 최고급 빌라 이달 분양
- ▶ '아시아 톱 1000 브랜드' 베트남 10개 브랜드 포함, 삼성 아시아 Top
- ▶ 한국, 베트남 교통운송발전 지원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후이엥 성, 호주 기업이 경마장을 건설 투자액 1억 USD
- ▶ 코카 콜라 식품 안전 감사, 보건성
- ▶ KIDO, 즉석 면·기름 등 신 사업 투자 가속

### ◆ 베트남기업 동향

- ▶ 베트남 "중소기업을 성장동력으로"...세금 인하·대출 우대
- ▶ 타이빈 성 첫 빈컴 SC 개업, 전국 20개 점포째
- ▶ 비나밀크, 국내 최초의 유기 우유 발매, 미국 기준 충족
- ▶ 비나밀크, 유기농 우유 내놔

##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 중앙 은행, 상업은행들에게 매월 동(VND)의 예금·대출 금리 보고 의무화
- ▶ 호치민~캄보디아 간 고속 도로 투자 총액 16조 VND 예상
- ▶ 5월 베트남 무역 수지 3개월 만에 1.7억 USD 적자로
- ▶ 상공부, Dung Quat 정유소 생산의 휘발유 제품 수출 인정하지 않아
- ▶ 건설 회사들 민영화로 ODA 사업 수주 증가, 입찰 참가 조건 충족
- ▶ 베트남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연(?), 1~5월의 CPI 상승률 전년의 3배
- ▶ 베트남 인건비 가파르게 오른다..."진출전략 바꿔야"
- ▶ 10개국과 기술규제 협의...베트남, 2차 전자 안전인증 의무화 6개월 유예



## 대한상공회의소

- ▶ 호치민시, 화학물질과 향료 판매시장 설립
- ▶ 동나이성, 수출기업을 위한 조건 개선해야
- ▶ 저렴한 수입차, 베트남에 들어와
- ▶ 정부, 국내 외화 대출 검토
- ▶ 국내선 항공 요금 오른다
- ▶ 의료보험 환자, 검진 및 치료비용 인상



##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개성공단 입주기업, 베트남에 대체공장 첫 가동

-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중소기업이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를 딛고 베트남에 대체공장을 지어 활로를 모색함
- 통일부는 "다음달 1일 베트남 하노이 인근 홍옌성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나인모드'의 대체공장 개업식이 열린다"고 23일 밝혔
- 나인모드는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07년 개성공단에 입주했다. 이 기업은 올해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베트남 진출로 경영 정상화에 나섬
- 나인모드는 홍옌성에서 300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지난 1일부터 공장을 가동 중이며 앞으로 인력 규모를 1천명 수준으로 늘려 생산을 확대할 방침임
- 통일부는 "나인모드의 베트남 공장 개업은 개성공단 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하는 첫 사례"라며 "정부 지원과 기업가 정신이 결합해 개성공단 폐쇄 3개월여 만에 해외 대체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함
- 정부는 나인모드에 개성공단경협보험금 조기 지급, 개성공단 기업 특별대출 등의 지원을 했고 베트남 현지 공장 부지 선정작업을 할 때는 현지 공관이 이 기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짐
-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대해 "베트남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고 있다"며 "나인모드는 개성공단 기업 경영 정상화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함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가운데 개성공단 폐쇄 이후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은 10곳이며 베트남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도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하고 있음

\* 출처: Yonhapnews, 06.23

#### 현대해상,베트남하노이사무소설립

- 현대해상은 베트남 신사업 기회 확보, 현지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서비스 강화, 베트남 현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를 설립했다고 21일 밝혔



- 현대해상은 베트남에 기존 호치민 사무소에 이어 두번째로 사무소를 설립했다. 현대해상은 해외 사무소를 향후 중·장기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할 계획임
  - 현대해상은 이번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설립으로 베트남 신시장 진출을 위한 또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임
- \* 출처: Etoday.co.kr, 06.21

### 대우건설,베트남하노이스타레이크신도시최고급빌라1차분양

- 대우건설은 이 달 베트남 하노이 중심에 위치한 ‘스타레이크’ 신도시 내 최고급 빌라 1 차분 182 가구를 분양한다고 20 일 밝혔
  - 하노이 시청에서 북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지역에 지어지는 스타레이크 신도시는 여의도 면적 3분의 2 크기의 신도시임
  - 대우건설이 100% 지분을 소유한 베트남 THT 법인이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상업 및 업무용지, 학교 및 정부기관 용지, 주거용 빌라, 아파트, 주상복합 등이 차례로 개발될 예정임
  - 사업비는 총 22 억 달러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1 단계 사업비만 12 억 달러에 달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은 하노이를 대표하는 최첨단 주거, 업무, 행정 복합도시로 변모하게 됨
  - 이번 1 차 분양 물량은 신도시 남서측 H7·10 블록에 위치한 것으로 지상 3~4 층 총 182 가구다. 면적은 개별필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132~399 m<sup>2</sup> 총 20 개 타입이고, 최저 72 만 달러(약 8 억 3577 만원)에서 최고 235 만 달러로 분양가가 책정됨
  - 정식예약은 내달 4 일부터 시작이며, 계약금은 분양가의 20% 수준이다. 입주는 내년 7 월 예정임
  - 대우건설은 1 차에 이어 올해 2 차, 내년 3~4 차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600 가구 규모의 아파트도 뒤이어 분양됨
  - 베트남 스타레이크 신도시 사업은 정부 주도형 개발이 아닌 국내 최초 민간기업 주도 사업이다. 인허가는 물론 금융조달, 시공 및 분양에 이어 운영까지 모두 자력으로 추진하는 첫 한국형 디벨로퍼 사업의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음
  - 2012 년 토지 인수를 시작으로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약 80% 가량 진행됐고, 현재 분양이 진행중인 빌라단지에는 이미 기초공사가 완료됨
- \*출처: Etoday.co.kr, 06.20



**'아시아 톱 1000브랜드' 베트남 10개 브랜드 포함, 삼성 아시아 Top**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광고 업계 잡지 "캠페인·아시아 퍼시픽지(Campaign Asia-Pacific)"이 발표한 "아시아 톱 1000 브랜드(Asia's Top 1000 Brands)" 2016 년판에 베트남에서 저가 항공 비엣 제트 에어(Vietjet Air), 휴대 통신 대기업 국방부 산하의 베트남 군대 통신 그룹(Viettel Group), 베트남 최대 원유 딜러 페트로 리맥스 총 공사(Vietnam National Petroleum Group=Petrolimex) 등 10 브랜드가 선출됨

○ 이번 선정된 베트남의 10 개 브랜드는 다음과 같음

◇ Vietjet Air: 490 위(전년 531 위)

◇ Viettel : 501 위(동 551 위)

◇ Petrolimex: 512 위(동 573 위)

◇ Vinamilk, (유제품 제조 업체): 558 위(동 547 위)

◇ Mobifone (휴대 통신 대기업): 605 위(동 645 위)

◇ Trung Nguyen, (커피 체인 대기업): 626 위(동 545 위)

◇ Hao Hao, (Acecook Viet Nam=ACV: 용기 면): 654 위(동 589 위)

◇ Vietnam Airlines(VNA): 708 위(동 555 위)

◇ Vietcombank: 753 위(동 827 위)

◇ P/S(Unilever: 치약): 807 위(동 675 위)

○ 이 랭킹에선 삼성(Samsung)이 6년 연속 선두를 지켰다. 이하 ◇ 2 위: 애플(Apple),

◇ 3 위: 소니(Sony), ◇ 4 위: 네슬레(Nestle), ◇ 5 위: 파나소닉(Panasonic) ◇

6 위: 나이키(Nike), ◇ 7 위: LG, ◇ 8 위: 캐논(Canon), ◇ 9 위: 샤넬(Chanel), ◇

10 위: 아디다스(Adidas)의 순임

○ 이 랭킹은 미국의 시장 조사 회사 닐슨(Nielsen)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 개국·지역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브랜드"에 관한 조사에 의거, '캠페인·아시아 퍼시픽'지가 매김

\* 출처: Vinahanin.com, 06.19



### 한국, 베트남 교통운송발전 지원

- 베트남 교통운송부와 한국 국제협력기관(KOICA) 베트남 지국은 지난 6 월 14 일 하노이시에서 <교통운송발전 파트너 경험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힘
- 이번 체결식에서 베트남 교통운송부 왕업동(Nguyễn Ngọc Đông)차관은 “1992 년 외교 재수립으로 시작된 베트남-한국 간 협력 관계는 지난 20 년간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옴.
- 또 여러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교통 협력 프로그램은 베트남 교통 시스템 개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며 “<교통운송발전 파트너 경험 교류>는 많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베트남에 PPP(민간협력체계)투자 형태 촉진, 철도 분야의 법률 시스템 및 인적 자원 교육을 완성 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고 강조함
- 코이카측 장재윤 소장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철도 분야에 관한 기술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철도에 연관된 정책 제도 설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 베트남 도로 및 철도 인프라 분야의 PPP 프로젝트에 대한 베트남 정부-한국 기업 간의 투자 강화와 동시에 투자 방안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며 “코이카는 현재 교통운송 발전 교류 파트너로 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 년에는 연구 지원 프로젝트인 F/S 호치민시 메트로 5 호선에 대한 MOU 체결을 하기도 했고, 현재 F/S 메트로 8 호선에 대한 연구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6 월 18~25 일 일정으로 전문팀을 구성,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 밝힘
- 교통운송분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베트남 재정 지원 국가 중 2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6 년부터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 약 2,400 만 달러를 지원하여 혁신 프로젝트를 구현했다고 전함
- 구체적으로는 18 국도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후 2007 년부터 현재까지 양국은 총 가치 1 억 6,600 만 달러에 달하는 3 개의 프로젝트를 완료 했고, 추가적으로 11 억 달러에 달하는 6 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힘



## 대한상공회의소

- 이 6 개의 프로젝트 중 2 개의 프로젝트가 철도 관련 프로젝트이다. 또 한국 정부는 코이카를 통해 ODA 자금을 이용해 북-남쪽 냐짱-호치민, 하노이-빈 철도의 기술 타당성 조사(F/S)를 지원했으며, 현재는 라오스 철도 구간인 Vung Ang-Tan Ap-Mu Gia 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함
  - 이번 프로젝트인 <교통운송발전 파트너 경험 교류>는 베트남 교통 인프라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2 개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PPP 형태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함
  - 또 법률 시스템에 대한 조언을 통해 베트남 철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할 방침이며, 인적 자원의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과 한국 철도의 개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철도의 분야에 전문가를 양성 시킬 계획이라고 전함
  - 이번 프로젝트 기한은 2016 년~2019 년까지며, 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약 500 만 달러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베트남측은 조약 이행에 따른 적절한 자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함
  - 코이카는 PPP 형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며, 여기에 호치민-목바이 고속도로 프로젝트, 빈화-붕따우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PPP 형태 진행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6.22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후이엥 성, 호주 기업이 경마장을 건설 투자액 1억 USD

- 호주의 골든 터프 클럽(Golden Turf Club)은 10 일 남 중부 연안 지방 후이엥(PHÚ YÊN) 성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마장 건설 안건의 투자 허가증 수령식을 개최했다. 수령식에는 동성 공산당 위원회 서기, 동성 인민 위원회 부주석 등이 참석함
- 이 안건은 동성 Tuy Hòa 시 An Phú 마을 및 Tuy An 군 An Chán 마을에 있는 134ha 의 용지에서 전개한다. 투자 총액은 1 억 USD. 2017 년 제 1 기가 완성되고 2019 년에는 모든 것이 개업할 전망이다





## 대한상공회의소

○ 이 안건이 완성되면 동성의 관광과 농업의 발전, 일자리 창출, 지방 예산의 수입원 증가, 사회 경제 발전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출처: Vinahanin.com, 06.19

### 코카 콜라 식품 안전 감사, 보건성

○ 베트남 보건부 감사부장은 코카 콜라 베트남사의 식품 안전성에 관한 법규 준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함

○ 검사 대상은 2014 년 1 월일부터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단은 식품 안전 확보에 관한 법규의 준수, 일부 유통 시설과 원자재, 식품 첨가물, 용기 씨플라이 어의 검사·확인 등을 실시함

○ 보건부 감사부는 올해 펩시콜라 베트남사, URC 베트남사, Wonder-Farm 사에 대해서도 역시 감사를 벌일 계획임

\*출처: Vinahanin.com, 06.22

### KIDO, 즉석 면·기름 등 신 사업 투자 가속

○ KIDO 그룹(이전 회사명: Kinh Do) 주주는 6 월 17 일에 열린 주총에서 매출 1 조 8,000 억동(약 8,182 만달러)세전 이익 1 조 5,000 억동(약 6,818 만달러), 2016 년의 주주 배당 16%(2015 년 14%, 외에 특별 배당 200%) 등 2016 년 사업 계획을 승인함

○ 이어 3 만동(약 1.36 달러)내에서 자사 주식을 2,600 만주 구입한다. 2015 년에도 평균 2 만 7,300 동(약 1.24 달러)에서 2,950 만주 구입하고 금고주를 5,099 만주로 높이고 있음

○ 2015 년 말 시점의 현금 3 조 600 억동(약 1 억 3,909 만달러)를 원자(原資)로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라면, 기름, 조미료 등 사업 분야에의 투자를 계속함

○ 아이스 크림, 요구르트, 냉동 식품으로 아이템을 확대하고 Bac Ninh 공장 건설에 4,000 억동(약 1,818 만달러)을 투자하여 생산성을 170% 높임



○ 그 외 2016년 하반기에 현재의 34% 보유에서 적어도 51%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Vocarimex(식물성 기름 공업 총공사) 주식을 공개 매수하고 제과 사업의 남은 20%의 매각을 추진함

\*출처: Vinahanin.com, 06.22

## ◆ 베트남기업 동향

### 베트남 "중소기업을 성장동력으로"...세금 인하·대출 우대

- 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 베트남이 경제성장 견인차로 중소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섬
- 23일 일간 탕니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공공조달 때 우대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임
- 베트남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2020년까지 15~17%로 낮추고 기술이나 제조업 분야의 창업 기업에는 처음 15년간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은 공공조달 예산의 최소 20%를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4만 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됨
- 베트남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대출의 30% 이상을 중소기업에 하거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전체 기업의 97%를 차지하지만,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43%로 낮은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을 촉진해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구상임
- 여기에는 미국,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이 갈수록 늘어나면 자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함
- 올해 1~5월 베트남에서 창업한 기업은 4만 4천 740개로 작년 동기보다 24.1% 증가했다. 반면 폐업 기업은 4천 643개로 19.5% 늘어났으며 대부분 자본금 100억 동(5억 원) 이하의 기업들이 차지함
- 베트남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 6.7%, 내년 6.8%로 각각 정하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출처: Yonhapnews, 06.23

### 타이빈 성 첫 빈컴 SC 개업, 전국 20개 점포제

○ 베트남 대기업 빈그룹(Vingroup)은 18 일, 홍강 삼각주 지방 타이빈 9Thái Bình) 성에서 동성 첫 "빈컴" 브랜드 쇼핑 센터(SC) "빈컴·플라자 리 본(Vincom Plaza Ly Bon)"(460 Ly Bon St., Thai Binh City, Thai Binh Prov.)을 개업했다. 이는 전국에서 20 개 점포제의 "빈컴" 브랜드 SC 임

○ 이 SC 는 지상 5 층, 지하 1 층으로 연면적은 1 만 6200 m<sup>2</sup>로. 타이빈 시 중심부의 리 본(Ly Bon)거리, 레 로이(Le Loi)거리 광쭙(Quang Trung)거리 독 뉴옹(Doc Nhuong)거리에 둘러싸인 좋은 입지 조건의 위치에 있음

○ VIC 가 체인 전개하는 슈퍼 마켓 "빈 마트(VinMart)"(면적 1651 m<sup>2</sup>)나 전자 기기·가전 판매점 "빈 프로(Vinpro)"(동 1049 m<sup>2</sup>), 시네마 콤플렉스 "롯데 시네마(Lotte Cinema)"(동 1310 m<sup>2</sup>)와, 어린이용 오락 시설 "플레이 타임(Play Time)"(동 1154 m<sup>2</sup>)등이 병설되어 있음

○ VIC 는 이 SC 의 인접지에서 "빈컴 숍 하우스 타이빈(Vincom Shophouse Thai Binh)"도 벌이고 있다. 숍 하우스는 매장 공간이 달린 테라스 하우스(주택)식 주택이다.1 가구당의 면적은 75~215 m<sup>2</sup>로 1 층이 매장 공간, 2 층 이상이 주거 공간임

\*출처: Vinahanin.com, 06.22

### 비나밀크, 국내 최초의 유기 우유 발매, 미국 기준 충족

○ 베트남 유제품 제조 업체 비나밀크(Vinamilk)는 14 일 미국 농무부(USDA)이 정하는 유기농 식품 기준을 충족하는 유기 우유 "비나 밀크 오가닉(Vinamilk Organic)"을 발매함

○ USDA 유기농 식품 기준을 충족하는 우유를 생산하는 것은 베트남에서는 동사가 처음이다. 이 제품은 유기농 식품 기준 ◇ 유전자 조작 없이 ◇ 성장 호르몬과 항생 물질 불사용, ◇ 원료 재배지에서의 화학 비료·농약의 사용 금지 등 3 가지 항을 모두 채우고 있음



○ 이에 앞서고 베트남 유제품 제조 대기업 TH 밀크(TH Milk)은 2015년 세계 유수의 유기농 인증 검사 기관인 컨트롤 유니온(Control Union)과 유럽 연합(EU) 및 미국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기 우유 생산에 관한 계약에 서명했다. TH 우유는 2016년 말에 유기 우유를 출시할 계획임

\*출처: Vinahanin.com, 06.17

### 비나밀크, 유기농 우유 내놔

○ 비나밀크사는 지난 6월 15일 시장에 오가닉 유제품을 내놓는다고 공표했으며, 이와 같은 제품들은 미국 USDA(유기농인증제도)요구 기준으로 제조되었다고 밝힘

○ 이와 같은 유기농 제품은 비 GMO(유전자재조합), 호르몬 촉진제 비사용, 항생제, 농약,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밝힘

○ 비나밀크 대리인에 따르면 안전한 제품, 건강한 제품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오가닉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오가닉 제품을 시장에 내놓게 되었다고 설명함

○ 또 모든 오가닉 우유 제품은 광대한 초원에서 소를 방목해 얻은 것이라고 밝힘

○ 이외 소를 기르는 과정 및 생산 방식은 미국 오가닉 인증제도의 엄격한 규정을 따랐으며, 천연 영양소가 풍부한 오가닉 제품이라고 강조함

○ 비나밀크 경영운영 사장인 판민띠엔(Phan Minh Tiên)씨에 따르면 “비나밀크의 오가닉 우유는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오가닉 제품들 중 처음으로 내놓은 프리미엄 제품이며, 자연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에 도움을 준다” 며 “현재 세계는 오가닉 제품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데,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미국 유기농인증을 받은 고품질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고 밝힘

○ 오가닉, 유기농 식품들은 생산 규정이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세계에서 프리미엄 식품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는 수년간 오가닉 우유를 포함하여 오가닉 식품 사용이 보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구매되어지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음

○ USDA 인증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USDA 기관을 통해 감사를 받으며 직접 생산지를 방문하거나 방문 한다는 통보를 하지 않고 불시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함



○ 또 이유에 상관없이 USDA 규정에 벗어난 유기농 제품이 있다면, 벌금과 동시에 인증을 취소한다고 밝혔으며 USDA 인증을 받는 제품들은 명확하게 USDA 인증 표시를 하고 있다고 전함

\*출처: Vietnam-Korea Times, 06.22

##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중앙 은행, 상업은행들에게 매월 동(VND)의 예금·대출 금리 보고 의무화

○ 베트남 국가 은행은 최근 각 상업 은행들에 대해서 6 월부터 매달 20 일에 VND 주택 예금·대출 금리의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중앙 은행의 Lê Minh Hung 총재가 각행의 금리 인하 계획을 입안·실시하도록 지시한 뒤에 나온 것임

○ 중앙 은행에 따르면 현재 VND 예금 금리는 안정되어 1~6 월 것이 년 4.5~5.4%, 6~12 월 것이 년 5.4~6.5%, 12 개월물 이상이 년 6.4~7.2%임

○ VND 대출 금리는 대출 우선 분야용 단기 금리가 연 6.0~7.0%, 생산 판매용 단기 금리가 연 6.8~9.0%, 중장기 금리가 연 9.3~11.0%로 추이 했다. 한편 USD 대출 금리는 연 2.8~5.2%임

\*출처: Vinahanin.com, 06.21

### 호치민~캄보디아 간 고속 도로 투자 총액 16조 VND 예상

○ 베트남 교통 운수성 교통 안전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는 최근, 호치민시와 캄보디아를 잇는 고속 도로 건설 안건의 투자 방안을 동성에 제출했다. 이 안건은 호치민시 흑몬(Hóc Môn) 군에서 동남부 지방 떠이닌(Tây Ninh) 성 목바이(Mộc Bài) 국경 게이트까지 잇는 길이 55km 의 고속 도로를 건설하는 것임

○ 이 고속 도로는 6 차로에서 설계 속도는 120km/h. 투자 총액은 15 조 8850 억 VND 로 2 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 1 기에서는 10 조 3460 억 VND 을 투입하여 4 차선 도로를 건설함



○ 현재 호치민시와 목 바이 국경 게이트를 잇는 도로는 국도 22 호선만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구간을 잇는 새로운 루트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출처: Vinahanin.com, 06.21

### 5월 베트남 무역 수지 3개월 만에 1.7억 USD 적자로

○ 세관 총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5월 수출액은 전월 대비 +0.1% 늘어난 143억 7100만 USD, 수입액은 동 +3.4% 늘어난 145억 4800만 USD 임

○ 이로써 5월 무역 수지는 ▲ 1억 7700만 USD의 적자를 냈다. 월간 기준으로 3월과 4월은 연속 흑자를 기록함

○ 연초 5개월간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난 674억 4400만 USD 였으나, 수입액은 동 ▲ 1.7% 감소의 658억 0500만 USD. 이로써 연초 5개월간의 무역 수지는 16억 3900만 USD 흑자를 보임

○ 또한 외국 기업으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4% 늘어나는 반면 수입액은 동 ▲ 2.8% 감소하고 있음

○ 연초 5개월간의 수출액 가운데 품목별로 금액이 가장 컸던 것은 "휴대 전화 부품"의 142억 5435만 USD로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

○ 반면 수입액이 가장 큰 품목은 "기계 설비 부품"의 105억 9074만 USD로 전년보다 ▲ 7.2% 감소함

\*출처: Vinahanin.com, 06.21

### 상공부, Dung Quat 정유소 생산의 휘발유 제품 수출 인정하지 않아

○ 베트남 상공성은 최근 Binh Son 석유 정제 화학 회사(BSR)에 Dung Quat 정유소에서 생산된 휘발유 제품의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문서로 통지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함



- 이 문서는 Dung Quat 정유소에서 생산된 기름을 수출하겠다는 BSR의 제안에 대한 상공부의 결정을 명기한 후, 제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Dung Quat 정유소의 제품은 매년 가솔린 수급 균형을 감안하여 생산되어야 함
- 또 국내 시장 판매를 우선하고 외국 연료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적자의 억제 등을 도모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지적함
- 이 정유소는 휘발유를 최대한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업체와 적극적인 협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최근 휘발유 판매 업체들은 Dung Quat 정유소 제품의 구입을 줄이고 있다. 이는 2016년 1월 이후 한국에서 휘발유 수입 관세가 베트남 한국 자유 무역 협정으로 10%로 낮아지고 동남아 국가 연합(ASEAN) 각국에서 각종 연료에 대한 수입 세율은 0%로 수입품이 더 저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임
- Dung Quat 정유소는 베트남 국내 최초의 정유소로 원유 처리 능력은 년 650만톤이 되고 있다. 2016년 수입품과의 경합에서 판매 가격 인하를 면치 못 했으며 매출액은 전년보다 7~10%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출처: vinahanin.com, 06.19

### 건설 회사들 민영화로 ODA 사업 수주 증가, 입찰 참가 조건 충족

- 베트남에서 국유 기업의 민영화(주식 회사화)가 진행 되는데 따른 국제 기구나 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 개발 원조(ODA)자금에 의한 인프라 건설 사업을 따내는 베트남 기업이 늘고 있다고 현지 언론 VN 익스프레스가 전함
- 금리 1~3%의 유리한 ODA 자금은 베트남의 인프라 정비의 주요 자금원. 그러나 베트남 국유 기업은 이미 정부의 특별한 금융 지원을 받고 있어 세계 은행과 아시아 개발 은행, 외국 정부 기관 등이 자금 공여에 있어서 부과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음.
- 탄롱 건설 그룹의 최고 경영자(CEO)는 "그동안 베트남 기업들은 ODA 사업에서는 외국 기업의 하청 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함
- 민영화로 기업은 주식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면서 정부의 저금리 자금은 얻을 수 없게 됐지만 그 대신 외국 기업들과의 ODA 사업 수주 경쟁에 끼게 됨



- 교통부 민 기업 관리 국장은 최근 2 년간 정부는 건설 회사 몇 곳에 대한 출자를 완전히 회수 했다고 지적함
  - 과거 5 년에 상장된 교통 관련 기업은 약 140 개로 동성의 계획을 50% 상회함
  - 베트남의 하도급 업체가 그동안 경쟁 입찰에서 낙찰에 성공한 사업은 1 억 달러 초과. 교통부는 2016 년에는 제 5 교통 공사 건설 총 공사 제 6 교통 공사 건설 총 공사 , 제 8 교통 공사 건설 총 공사 등 상당수 건설 대기업에서 자본을 회수 할 계획임
  - ODA 자금을 의한 사업을 감독하는 베트남 고속 도로 공사의 CEO 는 국내에서도 업자 선정 요건을 채우는 기업이 늘어 왔음을 평가. 다낭과 팡아이를 잇는 국도 건설 사업에서는 8 건의 입찰 안건 중 7 건을 베트남 기업이 낙찰했다고 함
  - 다른 건설 대기업 제 4 교통 공사 건설 총 공사는 2014 년에 일부 민영화됐지만 이 회사의 회장은 민영화에 의해서 관리 조직의 개혁이 진행되는 경영 효율이 높아졌다고 말함
  - 하노이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는 베트남 기업은 ODA 자금 사업에 진출하기 전에 대출해 주는 측에서 부과하는 조건이나 국제 관행을 이해하고 공정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기술, 재무, 사업 경험상의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 \*출처: Vinahanin.com, 06.19

## 베트남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연(?), 1~5월의 CPI상승률 전년의 3배

- 베트남 통계 총국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5 월 소비자 물가 지수(CPI)은 2015 년 말 보다 1.88% 오름
- 특히 4 월은 유가 상승 요인이 최근 5 년간 최대치 오르며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함
- 통계 총국에 따르면 1~5 월의 CPI 상승률은 2015 년 연간 3 배. 2015 년 연간 CPI 는 0.63%상승하고 월 상승률은 불과 0.05%에 그쳤다. 정부는 2016 년의 물가 목표를 5% 밀도는 수준으로 정했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한달 평균 상승률을 0.44% 이하로 억제할 필요가 있음
- 다만(석유 등) 원자재의 세계 시장 가격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기 수도 도로 통행료, 헬스 케어, 교육 등 필수 물자와 서비스 가격이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증가하면 은행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며 (저)금리에 의존하는 경제 발전은 위태롭게 됨

\*출처: Vinahanin.com, 06.19

### 베트남 인건비 가파르게 오른다... "진출전략 바꿔야"

- 우리나라의 3대 수출 상대국으로 떠오른 베트남의 현지 인건비가 최근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기업 진출 전략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 산업연구원(KIET)은 21일 발표한 보고서 '베트남 내 한국 다국적기업 현황과 시사점'에서 "다국적기업의 현지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의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점이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실제로 최근 베트남의 노동비용은 중국의 2005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990년대 초반 3천달러 수준에서 2014년 9천달러로 급증함
- 그사이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중국 시장의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체 시장을 찾아 나선 것임
- 2014년까지 한국의 다국적기업은 베트남에서 4천 190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377억달러를 투자했다. 투자 건수와 금액 모두 베트남 내 최대 규모임
- 또 우리나라는 올해 4월까지 베트남에 98억 6천만달러를 수출했다. 이에 베트남은 일본, 홍콩 등을 제치고 올해 우리나라 수출 상대국 3위에 오름
- 보고서는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으로 구분해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을 분석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업은 대부분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에 집중돼 있음
- 보고서는 "두 산업 모두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에 진출했지만 현재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며 "섬유산업은 여전히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공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지만, 전자산업의 경우 단순 가공, 조립 외에 연구개발(R&D)을 활용한 전문화에 성공했다"고 설명함
- 보고서는 이어 "이 때문에 베트남의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중간재 생산 공정 등을 갖춘 현지 전자산업과 달리 섬유산업의 경쟁력이 더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현지 진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단순 가공 분야보다는 투자와 노하우가 필요한 기업 핵심 기능을 끌어올려 전문화·집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국내 모기업에서 생산하는 중간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품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임
- 아울러 보고서는 베트남의 소비시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인구 9 천만명의 베트남이 지금 같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경우 현지 소비시장이 빠르게 확장할 것이기 때문임
- 보고서는 "베트남 소비시장을 공략하려면 장기적 안목에서 현지 기업과 전략적 제휴와 협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출처: Yonhapnews, 06.21

### 10개국과 기술규제 협의...베트남, 2차 전지 안전인증 의무화 6개월 유예

- 베트남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2차 전지 안전인증 규제의 시행을 반년간 미루기로 했다. 또 모로코는 국내 기업이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기존 시험성적서도 인정하기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 2 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 애로에 부딪힌 국가들과 기술규제 현안을 협의했다고 23일 밝힘
-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TBT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 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함
- 이번에 산업부는 13 개국과 30 건의 현안을 양자회담 형식으로 논의한 결과 모로코, 베트남, 콜롬비아 등 10 개국과 협의해 11 개 규제에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함
- 우선 베트남은 당초 올해 10 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지 안전인증 규제를 6 개월 정도 연기하기로 함
- 안전 인증을 받아야 우리 기업은 베트남에서 전지 제품을 팔 수 있지만 베트남에는 인증 시험소가 없어 국내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은 사실상 인증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임



## 대한상공회의소

- 콜롬비아는 전기·가스연료 사용제품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해, 오는 8월 시행 후 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현지 에너지 효율 시험성적서만 인정됨
- 또 모로코가 지난 4월 전기전자제품의 전자과적합성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모로코 내에서만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됐지만,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우리 기업은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함
-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절차 규정에 어긋난다고 모로코 정부에 강조하고 현지 지사 등과 함께 대응한 결과,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시험성적서도 인정하기로 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타이어 에너지효율을 등록할 때 단순 기재사항 변경도 새로 등록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요청으로 추가 비용을 취소하는 등 등록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
- 칠레 정부의 경우는 TV 에너지효율 라벨에 표기되는 전력소비량을 시험오차인 10%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체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함
- 연말에 시행 예정인 진공청소기 에너지효율 규제는 아직 시험소가 지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4개월 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함
-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향된 에어컨 에너지효율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일이 촉박해 재고관리와 판매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기존 통관 제품에 대해 1년 간 적용을 면제하기로 함
- 아울러 산업부는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는 중국의 표준화법 개정,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 등 6건의 해외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공식 제기해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공조를 이끌어 냄
- 산업부 앞으로도 외국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출처: Etoday.co.kr, 06.23

### 호치민시, 화학물질과 향료 판매시장 설립

- 김비엔시장(chợ Kim Biên, 호치민시 5군)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현황과 관련된 회의에서 쩌빈뚜옌(Trần Vĩnh Tuy ên) 호치민시 부 인민위원회 주석은 시인민위원회는 상공부에게 건설제안을 관리하라 지시했고 2016년 6월까지 제안안을 완성하여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지시와 투자를 받으라고 전함



## 대한상공회의소

- 회의내의 보고서중 판호안끼엠(Phan Hoàn Kiệt) 호치민시 시장관리지국 지국장에 따르면 현재 호치민시에는 600 개 정도의 조직, 개인이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업, 수입,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중 344 개는 공업용 화학물질을 수입, 생산, 판매하고 63 개는 동물보호, 수의, 수산물관련 화학물질을 수입, 생산, 판매하며, 나머지는 종합 화학물질을 수입, 생산, 판매하고 있음
- 또 김비엔시장 주변에는 영업 중인 화학물질 거래소가 93 개 있으며 5 군의 13 동, 14 동지역에 속한 반뜨엉(Vạn Trượng), 판반쾌(Phan Văn Khỏe), 하이트엉란옹(Hải Thượng Lãn Ông), 풍흥(Phùng Hưng) 등 김비엔시장 주변도로들에 집중되어있음
- 2016 년 1 분기에만 시장관리부는 19 건을 검사, 15 건은 위법으로 판명되었다. 이중 7 건은 주요 중국산인 5,370kg 의 밀수 화학물질을 소지하고 있었고 1 건은 유통기한이 지난 화학물질 200kg 를 판매했으며, 5 건은 제품에 부착되는 상품명세서의 규정을 위반한 126,972kg 의 화학물질이 발견됨
- 나머지는 모두 사업자등록증과 책정가격 위반이었다. 호치민시 시장관리부는 총 1 억 8,700 만동의 벌금을 책정했으며 밀수된 화학물질 중 유통기한이 지난 화학물질은 폐기 처리함
- 뿐만 아니라 1A 시장관리팀(화학물질분야 전문관리)은 5 군과 김비엔시장을 조사한 결과 공업용 화학물질 3 건, 식품안전 화학물질 15 건으로 총 18 건의 위법행위자를 검거함
- 벌금으로 총 1 억 8,200 만동이 책정되었으며 12.5kg 의 밀수된 첨가제와 8,715kg 의 밀수된 공업용 화학물질, 1,225kg 의 유통기한이 지난 공업용 화학물질들을 폐기 처리함
- 하지만 밀수, 원산지불명, 유통기한 초과, 상품명세서 규정 위반된 화학물질의 판매, 구매는 계속 실행되고 있음
- 판호안끼엠 지국장에 따르면 “그 이유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생산, 양식, 재배, 제조에서 사용 허가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 구매자의 이윤 때문이다” 라고 전함
- 이로 인한 상품들을 식품안전에 위협을 주며 섭취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

○ 판매자도 이윤에 눈이 멀어 밀수품, 원산지 불명품, 유통기한 초과품, 유해품, 금지품 등 구매자의 요구에 답하며 화학물질분야의 법률과는 상관없이 구매자의 목적도 신경쓰지 않는다. 판매자들은 판매 시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될시 구매처를 찾지 못하게 함

○ 쩌빈뉘엿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주석은 “화학물질, 향료의 요구는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지만 화학물질, 첨가물의 사업은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식품위생안전, 폭발을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의 안전을 제일로 하여야 하며 밀수 화학물질의 씨를 말리고 잘못된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동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고 전함

○ 호치민시는 깐비엣시장 주변과 시장 내의 화학물질 사업을 재기획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화학물질 사업을 5 군, 10 군, 빈뉘엿(Binh Tân)군으로 제한하여 기획할 계획임

○ 시 인민위원회는 화학물질, 향료의 판매를 사회화하기 위하여 빈뉘엿군 내 부지에 화학물질, 향료 거래시장을 건설하는 제안서를 상공부에게 제출함

○ 기한은 2016년 6월로 상공부는 호치민시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투자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

○ 처음에는 깐비엣시장과 호치민시내의 화학물질 판매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호치민시公安부와 관리부는 합작하여 법을 위반한 사건들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건들을 기소하여 압박을 가함

○ 상공부는 위법한 사건들 중 재범인 사건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화학물질을 밀수하는 사건들이 이에 해당함

○ 또한 주거지역 주변의 건물을 화학물질 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시내의 등록하지 않은 화학물질 창고의 검사를 강화함

○ 사업자등록증이 만료된 16개의 향료, 식품첨가물 사업업체에 대해서는 의료부의 2014년 4월 9일자 통보 번호 13/2014/TTLT-BYT-BNNPTNT-BCT에 의거 농업부와 상공부에서 연장시켜주지 않는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상공부는 식품안전담보, 원산지 관리감독 등 관리를 강화함

\*출처: Vietnam-Korea Times, 06.22



## 동나이성, 수출기업을 위한 조건 개선해야

- 베트남 공업무역회의소의 평가에 따르면, 동나이성은 국내의 다른 성, 시보다 빠르게 통합한다. 하지만 동나이성은 인프라시설, 물류서비스, 행정수속 처리기간 단축화 등 외국자본을 끌어 모을 만한 수출기업을 위한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VCCI가 발표한 2015년 성(省)급 경쟁능력지수(PCI)에 따르면 동나이성은 37위로 2014년보다 5단계 올랐다. 이는 성의 경쟁능력이 개선되고 있음을 증명함
- 하지만 2014년보다 토지접안, 비공식비용, 능동성, 평등경쟁, 노동훈련은 수치가 낮아졌다. 이외에도 물류서비스가 약해 기업들의 운송비용이 많이 들고 통관, C/O(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느려 생산, 수출에 영향을 줌
- 이와 관련 많은 기업이 하루씩 기다릴 정도로 C/O의 발급이 너무 느리다고 밝혔으며, 똑같은 상품을 기업이 자주 수입해도 수입할 때마다 행정절차를 요구하여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공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불평하고 있음
- 동나이 해관국에 따르면 빈투언(Bình Thuận)성과 동나이성의 관리수속을 같이 담당하기에 국내의 기타지역보다 처리기간이 8% 늦는다 해명했다. 많은 수출입 물량 때문에 행정수속의 단축화에도 요구에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임
- 해관은 해관총국에 다른 부서들과 협력하여 확인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부서와 연결되는 행정수속은 오래 걸려 기업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전함
- 공업에서 발전하고 많은 국도도 지나가고 수상편 또한 좋은 위치에 있지만 동나이성의 물류서비스는 발전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운송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동나이성 내 기업들에게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이기도 함
- 쩌응옥리엠(Trần Ngọc Liêm) VCCI 호치민시 부사장에 따르면 C/O를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선 각 지역의 해관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전함
- 예를 들면 한 기업이 100개의 C/O 발급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를 제출받은 직원은 어떤 서류가 급한지 알아서 먼저 처리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기업은 수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동나이성은 직접 C/O를 발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기업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게 하여야 한다는 것임



## 대한상공회의소

- 이외에도 동나이성은 국제 교류를 위하여 물류 인프라시스템을 개선시킬 투자자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성은 현재 성 내부의 기업과 남부 중요 경제구역이 사용가능한 물류센터 건설의 기획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기업은 이 분야에 투자를 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을 위하여 운송비를 최소화하고 있음
  - 해관측은 국가해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 부서와 해관총국을 연결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수출서류 완성기간을 10 일 이내, 수입서류 완성기간을 12 일이내로 낮추는 등 기업들을 위하여 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출처: Vietnam-Korea Times, 06.22

### 저렴한 수입차, 베트남에 들어와

- 베트남 통계청의 예상에 따르면, 5 월에만 다양한 완성차 12,000 대가 수입되었고, 같은 기간 작년보다 12% 증가한 수라고 밝힘
- 하지만 5 월 수입차 총 가치는 1 억 9,500 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0%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힘
- 또 5 월에 수입된 평균 수입차 가격은 약 16,000 달러 정도라고 밝혔으며, 이는 4 월 평균 26,700 달러보다 낮은 수치라고 전함
-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0%로도 안되는 수치이며 금액으로는 18,000 달러가 줄어들었다고 밝힘
- 5 개월 동안 베트남 완성차 수입을 보면, 금액으로는 9 억 2,700 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41,000 대의 차가 수입되었다고 밝힘
- 작년 같은 기간 동안의 완성차 수입과 비교하면 수입량이 8.8%하락했고, 수입액은 22.8%가 줄어들었다고 밝힘
-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세금 정책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2016 년 초 부터 특별 세금 정책으로 완제품 메이커들이 가격을 조정했는데, 배기량이 높은 차량이나, 고급차량 같은 경우 세금이 높아지고 광고나 공임, 운송 등에 필수 지출들이 높아져 사람들이 고급차를 사는데 망설이고 있다고 밝힘



- 또 오는 7 월 1 일부터는 2.5 리터 이상 고급차량부터 특별 세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는데, 6 리터 이상의 차량이 가장 높은 세율(60~150%)이 적용된다고 전하며 이 때문에 베트남에서 고급차를 소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함
  - 반대로 2016 년 자동차 시장은 값이 저렴해진 태국산 자동차가 밀려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태국산 자동차가 중국, 한국 등을 따돌리고 1 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함
  - 태국산 자동차 주 수입차종은 트럭, 픽업트럭 같은 것으로 가격 또한 평균 18,800 달러로 중국산 평균 가격인 38,000 달러보다 매우 저렴하다고 설명함
  - 베트남 자동차 판매 시장에 대해 베트남 자동차 생산 협회(VAMA)는 “5 월에만 총 26,028 대를 판매했으며, 같은 기간 작년 보다 4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5 개월 동안 약 111,442 대에 차량이 판매되었고 같은 기간 작년보다 31%가 증가됨
  - 여기에 85,238 대가 국내 조립 생산으로 생산되었으며, 수입 완성차보다 3 배 이상에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국내 조립 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 높은 수치며, 완성차 수입 같은 경우 16%증가에 그쳤다” 고 밝힘
  - 2016 년 5 월에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을 보면 Ford Ranger, Toyota Vios, Toyota Fortuner, Mazda 3, Kia Morning 순이었다고 전했으며, 타코(Thaco)사와 도요타가 베트남 자동차시장 매출 1 위, 2 위를 달리고 있다고 전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6.22

### 정부, 국내 외화 대출 검토

- 국내 외화 대출에 대한 검토 결정은 국내외에서 외화 자본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방향을 나타냄
- 구체적으로 정부는 재무부에게 국내에서 외화 채권 발행, 국제 채권 발행 등의 방식을 통해 17 조 동을 조달하라고 요청하며 국내외 자본 시장을 환경과 조건을 검토할 것을 주문함
- 국제 채권 또는 사무라이(Samurai)채권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부가 국회결정서 제 99/2015/NQ13 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총리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함





- 외화 채권 발행과 같은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8 억 달러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 규모는 지난 시도들에서 성공했듯, 국내에서 실현될 수 있는 규모임
  - 2015 년 4 월, 정부는 처음으로 외화 채권을 발행했고 국내에서 10 억 달러를 조달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 거래에 응한 것은 베트남 무역 은행(Vietcombank)임
  - 위와 같은 거래는 국내에서 이전에 정부가 국제 채권을 발행한 것에 비해 비교적 낮은 이자율과 비용을 들여 외화 조달을 하는 길을 열어줌
  - 정부의 계획과 방향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와 조금 다른 시장의 정황이 포착되고 있음
  - 2015 년 말부터 지금까지의 체제에 따라 중앙은행은 달러 조달 이자율을 국민들이나 기관이 송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0%로 유지함
  - 은행 시스템으로 송금되어 들어온 외화의 경우 대부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반면, 정부 채권으로 조달되는 경우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함
  - 최근 몇몇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에게 위의 이자율 정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외화 조달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외화 조달 방식 외에도, 최근 발행된 결정서에는 정부 총리가 재무부의 주재와 각 관련 연구 기관의 협력 국회의 의결서에 따라 공공채무 구조를 재구축하기 위한 국제 채권 발행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출처: Vietnam-Korea Times, 06.22

### 국내선 항공 요금 오른다

- 국내선 출/입항, 승객서비스비용, 보안심사비용 등이 현재 국제선에 비해 많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ACV(주식회사 항공 공항 총공사)는 국내선 서비스 비용의 가격 조정안을 제출했다고 전함
- 만약 이 제안이 승인된다면 국내선 비행 요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힘
- ACV 에 따르면 국내선이 운송 구조, 국내선 이용 승객수가 총 서비스의 2/3 정도 차지한다고 밝힘



- 2014 년 8 월 15 일 의결된 법령인 1992/QĐ-BTC 에 따르면, 베트남 국내선 항공서비스, 공항서비스, 출/입항 서비스 등에 비용은 국제공항 보다 2.5 배 낮아야 하고 승객 서비스 비용도 2.5~8 배 공항에 따라 낮아야 한다고 전했으며 보안심사 비용은 6 배 이상 낮아야 함
- 하지만 국내선 항공 투자 금액은 국제선 항공 투자금보다 20~30%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함
- 그렇기 때문에 ACV 는 교통운송부에 이번 가격 조정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요청했으며, 5 년간은 국내선이 국제선 보다 2~4 배 낮은 가격으로 5 년간 서비스를 진행하고 추후에는 서비스 민영화를 통해 자산 개발에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우선적으로 ACV 는 2015-2020 년 단계의 가격 조정 승인을 요청했으며, 여기에는 노이바이, 다낭, 띠엔선녓, 감란(Cam Ranh), 푸콕(Phú Quốc), 빈(Vinh), 푸바이(Phú Bài) 공항과 같은 신규 공항, 경제 발전 도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공항위주로 요청했음을 전함
- ACV 는 현재 전국 22 개의 공항 관리 개발을 맡고 있으며, 이중 21 개의 공항이 활동 중이며 나산(Nà Sản)공항은 개발을 중지한 상태라고 전함
- 22 개의 공항 중 9 개가 국제공항이며 13 개(나산 공항은 개발 중단)가 국내 공항 이고 총 공항 시스템에 승객 처리 능력은 2015 년 12 월 31 일 기준으로 연간 8 천만 명이라고 밝힘

\*출처: Vietnam-Korea Times, 06.22

### 의료보험 환자, 검진 및 치료비용 인상

- 베트남 의료보험공단은 지난 5 월 1 일부터 의료보험 보유 환자에게 지급되는 검진 및 치료비용이 인상될 것이라고 전함
- 베트남 의료보험 공단은, 의료보험 검진 및 치료비 산정 제도를 1,210,000 동이라는 기반에 따라 통일하여 시행하고,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 금액 책정 안내문을 공표함



## 대한상공회의소

- 이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자는 규정에 따라 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1 회 최저 181,500 동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월급의 15%와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전 월급에 따르면 지급금액은 172,500 동 미만임
- 의료보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회 최대 지급금액은 48,400,000 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40개월 치 최저 임금과 동일하고 변경 전 최대 지급금액은 46,000,000 동임
- 국내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1년 동안 받는 지급 금액은 평균적인 월급의 6개월 분 보다 많은 7,260,000 동이며 이전에는 6,900,000 동에 불과한다. 위의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됨
- 베트남 의료보험공단은 각 지방성, 도시, 국방부 사회보험, 인민공안 사회보험, 북부지방 의료보험 평가센터, 남부지방 의료보험 평가센터 등의 기관에 안내 공문을 보냄

\*출처: Vietnam-Korea Times, 06.22